

# 箜篌引異攷

崔 信 浩\*

## 1. 序

至今까지 箜篌引에 對한 研究가 많았다<sup>(1)</sup>. 그러나, 筆者는 既說과는 달리 箜篌引은 韓國의 歌謠가 아니라, 純粹한 中國歌謠로 보려는 것이다.

그 첫째 理由는 箜篌引의 誕生年代는 既說처럼, 漢代의 樂府에 屬한 노래가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後代인 晉武帝때 採錄된 相和歌로 보고 싶은데, 이때의 民歌整理作業은 韓半島와는 關係 없이 行해진 것이다.

\* 서울大學校 教養課程部 講師.

(1) 箜篌引에 對한 本格的인 研究는 鄭炳昱教授, 梁在淵教授, 徐首生教授가 남긴 業績이 있고, 諸學者의 概論이나 文學史에서도 例外 없이 언급하였다. 代表的 見解만 간추려 든다.

○ 鄭炳昱教授는 箜篌引의 이야기를 神話로 處理하여 白首狂夫를 酒神, 그 아내를 妖精의 樂神이라 보고, 主人公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 酒神의 最後라 보았으며, 叙事文學에서 叙情文學으로 옮겨가는 시기에 이뤄졌다고 보았다. (民族文化大系 古詩歌條)

○ 西紀 二世紀頃, 우리 나라 民歌가 漢土에 傳來되어 彼土에서 漢人의 손에 依해서 번역되었으리라 想像한다. (梁在淵教授, 국어국문학 五號 (p. 8))

○ 箜篌引의 漢文 定着年代는 漢四郡以後부터 前漢末까지다. 麗玉은 津吏婦며 移住한 漢人이 아닐까? 이 津은 當時(漢代)의 列永며, 지금의 大同江인데 漢代부터 高句麗 前期까지는 列水였다. 樂浪郡 朝鮮縣은 大同江 東岸 土城里 附近이다. (徐首生教授, 語文學 7輯 p. 30)

○ 箜篌引은 本格的인 國文學作品으로는 認定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本格的인 詩歌인 鄉歌 이전의 長久한 文學的 公域기에 나타난 하나의 民謠가 興味 있는 설화를 곁들인 것인데 이것이 後世人의 詩筆로 作品化한 것이라 볼 수 있다. 作品年代는 西紀前 108년부터 西紀後 200年頃이라 推測한다. (張德順教授 國文學通話)

둘째, 箜篌引은 남의 나라 樂錄에 실려서 傳해진 남의 나라 民歌인데, 굳이 韓國文學에다 隸屬시키려고 한 것은 箜篌說話에 나타난 「朝鮮」이란 地名을 韓半島에다 附會하려는데서 그렇게 된 줄 안다. 그러나 詳考해 보면, 晉代 以前은 勿論이요, 6世紀 以後까지도 直隸省內에 「朝鮮縣」이 存續하고 있었으므로 箜篌說話에 나타난 「朝鮮」은 이곳을 指稱했을 것으로 본다. 더구나, 그 「朝鮮」은 漢土에 歸化해 버린 立場이고 보면, 朝鮮縣의 民歌는 晉代 相和歌로 採錄된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 2. 年 代

既說을 綜合하면 箜篌引의 誕生 年代를 B.C. 108年, 漢四郡 設置 年代에서, 最大限, A.D. 200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箜篌引을 漢四郡이나 漢의 樂府 또는 漢의 滅亡과 脈絡을 지어보려는 漠然한 推算에 不遇할 뿐이다. 不透明하나마, 材料를 追跡해 보면, 漢室이 亡한 지 半世紀도 넘은 A.D. 275年頃, 晉 武帝가 行했던 民歌整理 때 相和歌 新曲으로 採錄된 듯하다. 이 事實을 考證하기 爲해서는 이 동안에 있었던 民歌整理作業에 關心을 支拂할 必要가 있다.

漢武帝로 부터 晉武帝에 이르는 約 4世紀동안에 民歌의 整理事業은 三次에 이른다. 漢武帝때, 樂府에서의 一次整理, 魏明帝때 清商署에서의 二次整理, 晉武帝때 光錄에서 行한 三次整理가 그것이다. 三次에 걸친 民歌整理 作業의 全貌를 正確히 把握할 수만 있다면, 箜篌引의 輪廓은 露呈될 것으로 본다.

먼저, 漢武帝가 採錄한 漢樂府를 考察해 보겠다.

樂府는 音曲을 前提하는 詩歌와 曲題를 빌어서 쓴 詩를 通稱하게 되었으나, 原來는 音樂官署의 名稱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漢樂府의 設置

는 B.C. 110年이니, 漢四郡 設置後 2年째가 되는 해요, 癡衰는 哀帝 綏和 2年, 곧 B.C. 7年에 該當된다. 樂府의 設置 目的은 말할 것도 없이 諸國의 民歌로 民風을 觀察하려는 儒家的 經世策에서 出發한 것인데 樂府의 規模를 보면 처음에는 趙·代·秦·楚 地方의 民歌를 採集한데 그쳤으나 갈수록 그 規模는 커졌다. 哀帝에 이르기까지 樂府의 從業員은 829名이나 되었음이 漢書 禮樂志에 밝혀져 있는데, 諸國의 民謠採集에 關係한 固定 人員은 다음과 같다.

邯鄲鼓員	三人
江南鼓員	三人
淮淮鼓員	四人
巴龠鼓員	三十六人
臨淮鼓員	三十五人
鄭四會員	六十二人
沛吹鼓員	十二人
陳吹鼓員	十三人
東海鼓員	十六人
楚鼓員	六人
秦倡象員	三人
楚四會員	十七人
巴四會員	十二人
鈞四會員	十九人
蔡謳員	三人

이렇게 民歌採集을 爲해서 넓은 地域에 걸쳐 老대한 規模의 專門家로 構成되어, 이들에 依해서 輯錄된 各國의 歌謠는 다음과 같다.

1. 吳·楚汝南歌 十五篇……鷄鳴歌 楚歌

2. 燕·代謳·雁門·雲中·隴西歌詩 九篇……隴西行, 步出夏門行.  
出自薊北門行
3. 邯鄲·河間歌詩 四篇……陌上桑
4. 齊·鄭歌詩 四篇……齊謳行
5. 淮南歌詩 四篇……淮南王歌
6. 左馮翊奏歌詩 三篇
7. 京兆尹奏歌詩 五篇……京兆歌 左馮翊歌, 長安城西行
8. 河東蒲反歌詩 一篇
9. 雜歌詩 九篇
10. 洛陽歌詩 四篇
11. 河南周歌詩 七篇
12. 河南歌聲曲折 七篇
13. 周謠歌詩 七十五篇
14. 周歌詩 二篇

以上은 樂府에서 輯錄한 各國의 民謠다. 이렇게 樂府曲을 追跡해 본 것은 漢樂府 속에 箜篌引의 採集如否를 考察함이었으나 箜篌引은 보이지 않는다. 或, 脫落을 豫想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면 二次 整理때의 民歌는 大部分 新曲이 採錄되었으므로 이곳에는 나타나야 하겠는데 二次 分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箜篌引은 아직 많은 時間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二次 整理는 魏明帝(227—238)때 行해졌다. 이것은 漢의 樂府 消滅後 처음으로 이룩된 大事業이며, 制度上으로도 變革을 가져온 것 같다.

魏代에는 民歌를 相和歌에 包含하였으며, 이의 管轄廳을 清商署이라 하고, 官員은 清商令이라 하였다. 資治通鑑 宋紀·昇明의 王僧虔의 글에 「今之清商 實由銅爵 三祖風流 遺音盈耳」라 있고, 이에 對한 胡三省

의 注에 「魏太祖起銅爵臺於鄴 自作樂 被於管弦 後遂置清商令以掌之 屬光錄勳

이라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相和歌에 關한 記錄은 齊의 永明五年(487), 王命에 依해서 撰한 沈約의 宋書中の 樂志와, 舊唐書, 新唐書의 藝文志와 唐 吳兢(670—749)의 樂府古題要와 宋의 郭茂清의 樂府詩集이 있는데, 이들 撰集에는 西晉(?—289)의 荀勳의 相和歌 分類, 張永(410—475)의 元嘉正聲伎錄이 밝힌 相和歌의 分類, 王僧虔(426—485)의 大明三年宴樂伎錄, 陳의 釋智匠의 古今樂錄等에 關한 斷片的 記錄을 얻어 볼 수 있다. 먼저, 宋書·樂志를 보면 相和歌의 性格을 밝혀 놓은 것이 있다.

相和 漢舊歌也 絲竹更相和 執節者歌 本一部 魏明帝分爲二 更遞夜宿 本十七曲 宋生·宋識·列和等 復合之爲十三曲(宋書·樂志三 晉書·樂志)

魏明帝때의 相和歌의 樣相을 多少 알 수 있다. 相和歌는 漢舊歌라는 것과, 絃樂器와 管樂器, 樂器와 唄이 相和했음을 알 수 있고, 更遞夜宿이라 하여 二部로 나뉘 夜間練習이 行해졌음을 알겠다. 그러나, 여기에 關心은 宋生, 宋識, 列和가 整理한 相和歌 十七曲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다시, 宋書·樂志를 追跡해 보면 十三曲만이 드러난다.

① 氣出唱 ② 精列 ③ 江南 ④ 度關山 ⑤ 東光乎 ⑥ 十五 ⑦ 薤露  
⑧ 蒿里行 ⑨ 對酒 ⑩ 鷄鳴 ⑪ 烏生 ⑫ 平陵 ⑬ 陌上桑.

위의 分類에서 본 바와 같이 相和歌 13曲中에 箏篋引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或 漏落된 四曲中에 包畧되지 않았을가 疑心하여 그 四曲을 追跡해 보았다. 樂府詩集卷 二六의 解說에서 提示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本十七曲인듯 하다.

古今樂錄曰 張永元嘉技錄 相和有十五曲 一曰氣出唱 二曰精列 三曰江南 四曰度關山 五曰東光 六曰十五 七曰薤露 八曰蒿里 九曰觀歌 十曰對酒 十一曰鷄鳴 十二曰烏生 十三曰平陵東 十四曰東門 十五曰陌上桑……二曲無辭觀歌 東門是也

武陵, 鷄鳴의 二曲은 亡失되고 觀歌, 東門의 二曲은 歌辭가 없는 曲名임을 알릴 뿐 亦是 笙篴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張永의 元嘉技錄이 正確한 것이라면 魏明帝(227—238) 때까지는 笙篴引은 採錄되지 않은 것이 分明하다.

第三次 相和歌의 整理는 晉武帝(265—290) 때 荀勖(?—289)의 손에 依해서 이뤄진 듯하다. 荀勖傳은 晉書卷三九나 同書 律曆志 및 樂志에 보이고 宋書의 律志·樂志에 보인다. 荀勖은 宗廟舞樂의 制定이나 雅樂의 整備를 斷行한 사람이다. 宋書·律志 律曆志를 보면, 荀勖은 太始十年에 十二律笛을 만들어 「雜引相和」로 郝生에게 吹笛케 하고 宋同에게 提琴케 했다 하였고, 太平御覽에도 같은 內容을 紹介했으나, 「雜引相和」代身에 「新引相和」란 말을 썼다. 다시 宋書·樂志에는 「清商三調歌詩 荀勖撰舊詞施用者」라 하였다. 「新引相和」는 相和歌의 再編을 意味한 것이며, 「清商三調」는 音樂的인 曲調의 再整理를 말한 것이다. 즉 清商署은 魏末에도 있었던 것이나 晉代에는 더 分化 發展한듯 하다. 晉書 職官志에 보면,

太上有博士 協律校尉員 又統太學諸博士 祭酒及太史 太廟 太樂 鼓吹 陵等令 光祿勳 統東園匠 太官 御守 守宮 黃門 掖庶 清商 華林園 暴室等令

太常所屬의 官員과 光祿所屬의 官員이 있어 前者는 雅樂을 掌握하고 後者는 俗樂을 掌握했음을 알 수 있고, 清商署은 太常所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荀勖의 撰集한 歌樂集은 亡失된 듯하고 다만 舊唐書 經籍志 集類에 「太樂歌詞三卷 荀勖撰」이라 했고 新唐書 藝文志에 「荀勖太樂雜

歌辭三卷」이라 있을 뿐이다. 荀勖의 相和歌의 分類는 宋의 張永(410—475) 撰인 元嘉正聲伎錄에 紹介한 것을 宋의 郭茂倩의 樂府詩集 卷二六 相和歌辭總題下에 解說해 놓은 것이 있다. 그 分類를 보면

1. 相和六引 2. 相和曲 3. 吟歎曲 4. 絃曲 5. 平調曲 6. 清調曲 7. 瑟調曲 8. 楚調曲 9. 大曲

이렇게 九曲이 보이는데, 相和引을 보면,

1. 箏篋引 2. 商引 3. 徵引 4. 羽引

비로소, 晉武帝때 荀勖이 行한 相和歌 分類에서 箏篋引이 나타난 것이다. 또 樂府詩集五十九 琴曲歌辭의 解說에는 「古琴曲有五曲九引十二操」라 하고, 九引中의 第七番에다 箏篋引을 두었다. 그러나, 여기 登場한 箏篋引은 반드시 「公無渡河歌」에만 限한것은 아니다. 왜그러냐 하면, 箏篋引의 「引」은 操名일 수도 있고 歌詞名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樂府詩集에 引用한 古今樂錄에는 晉·宋·齊間을 通해서 箏篋引은 曹植의 「置酒」를 불렀다고 되어 있고, 宋書 樂志卷三 大曲에 引用한 「置酒」條의 沈約의 注에도 「箏篋引亦用此曲」이라 하였으며, 다시 樂府古題要解에서는 「置酒」는 「野田黃雀行」으로 부른다 하였으니 이 둘은 異名同曲임을 알겠다. 다만, 樂府詩集에 引用한 箏篋引은 「崔豹古今注曰」이라 前提하고 歌詞도 「公無渡河歌」를 紹介하였고, 唐 吳兢의 樂府古題要解에서는 最後의 句를 「公墮而死當奈公何」의 七言句로 하였으나 亦是 「公無渡河」를 紹介하였다. 이렇게 「置酒」와 「公無渡河歌」가 엇갈린 事情은 아마도 「置酒」와 「公無渡河行」은 다 같이 箏篋曲이면서도 演奏의 立場이 다른 탓이 아닌가 한다. 왜그러냐 하면, 「置酒」는 歌名이 보여 주듯이, 宴樂에 合當한 노래이며, 箏篋引은 노래의 性格으로 보아서 挽歌나 鎮魂歌에 合當한 노래이므로, 즐거운 술자리에서보다는 어떤

特定한 자리에서 불렀다고 推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公無渡河歌」나 「置酒」는 同時代에 出現한 것은 分명한 것 같다. 荀勖의 分類에 基本한 王僧虔(425—485)의 「大明三年宴技錄」을 보아도, 瑟調曲으로 「置酒」와 「公無渡河行」을 同時에 넣어 놓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sup>(2)</sup>. 이러한 關係는 別途의 考察이 있어야 하겠으나, 위의 考察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箜篌引의 採錄年代는 晉의 武帝 以上으로 遡及할 수 없다는 것만 밝혀 둔다. 다시 말하면, 「公無渡河歌」는 第三次 相和歌整理期인 晉武帝 때 荀勖이 新曲으로 採錄한 것으로 짐작된다. 더 正確히 말하면, 荀勖이 新曲을 整理한 太始 10年은 西紀로 275年에 該當한다.

郭茂倩도 古今樂錄 樂府古題要解 및 其他의 撰集을 綜合해서 相和歌를 分類해 놓은 것이 있는데, 亦是 晉樂條에다 箜篌引을 두었다.

### 魏 樂

相和曲……度關山, 薤露, 蒿里行, 對酒.

平 調……短歌行.

### 魏晉樂

相和曲……氣出唱, 精列, 江南, 東光, 十五, 鷄鳴, 烏生, 平陵東, 陌上桑.

### 晉 樂

瑟 調……西門行, 東門行, 野田黃雀行(箜篌引) 雁門太守行, 豔歌嘗行, 煌煌京洛行, 權歌行.

楚 調……白頭吟, 怨詩行

이렇게 郭茂倩의 分類에서도 箜篌引을 晉樂에다 包含시킨 것을 보면,

(2) 王僧虔은 瑟調曲으로 다음의 三十八曲을 두었다.

(1) 善哉行 (2) 隴西行 (3) 折楊柳行 (4) 西門行 (5) 東門行 (6) 東西門行 (7) 却東西門行 (8) 順東西門行 (9) 飲馬行 (10) 上留田行 (11) 新城安宮行 (12) 婦病行 (13) 孤子生行 (14) 放歌行 (15) 大牆上蒿行 (16) 野田黃爵行 (17) 釣竿行 (18) 臨高臺行 (19) 長安城西行 (20) 武舍之中行 (21) 雁門太守行 (22) 豔歌何嘗行 (23) 豔歌福鍾行 (24) 豔歌雙鴻行 (25) 煌煌京洛行 (26) 帝王所居行 (27) 門有車馬客行 (28) 牆上難用趨行 (29) 日重光行 (30) 蜀道難行 (31) 權歌行 (32) 有所思行 (33) 薊阪行 (34) 採梨橋行 (35) 白楊行 (37) 青龍行 (38) 公無渡何行

漢은 勿論이요, 魏代에 까지도 笙篴引은 採錄되어 있지 않고, 晋代相和歌로 採錄되었음을 立證해 준 것이다. 그러므로, 相和歌는 漢舊歌를 採錄한 것이라고는 하나, 前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實際로는 漢樂府歌詞가 晋代에 까지 持續된 것은 陌上桑 하나 뿐이고, 모두 新曲임을 알 수 있고, 또 魏樂과 比較해 보아도 晋樂은 전혀 新曲을 採錄했음을 알겠다. 그러므로, 崔豹의 「古今注」란 이름이 暗示하듯, 「古」는 漢舊歌를 뜻한 것이나, 「今」은 晋代의 新曲을 뜻할 것이며, 笙篴引은 新曲에 들 것으로 본다.

### 三. 地理的 背景

다음은 地理的 背景이다. 既說에 依하면, 笙篴引의 地理的 背景을 韓半島內의 大同江쯤으로 보았다. 이것은 笙篴說話가 밝힌 바, 朝鮮津卒云云에서 「朝鮮」을 韓半島內의 古朝鮮에다 附會하려는 意圖이겠으나, 前述한 것처럼, 笙篴引의 採錄年代가 A.D. 275年頃이고 보면 晋나라가 東으로 遼西 遼東 玄菟 樂浪 帶方의 五郡을 奄有하고, 이어 國內를 統一하는 時期이며, 韓半島에서도 漢土의 植民性を 拂拭하고 高句麗가 雄步를 내딛을 때이었으니 晋代의 民歌 採錄에 새삼스럽게 大同江이 云謂되었다고 본 것은 釋然치 않은 일이다.

또, 一說에는 當時에 韓半島에 나와 있던 中國官吏에 依해서 中國에 傳해졌으리라 推測하는 學者도 있으나, 이것 亦是, 壅塞한 辯明이다. 차라리, 晋域 안에 자리잡고 있는 朝鮮이란 地名에 關心을 支拂하는 것이 自然스러울 것이 아닌가 한다. 北中國의 東北 一帶에 자리 잡고 있었던 古朝鮮民이 大陸의 壓力으로 韓半島로 版圖를 좁힌 後에도 그 緣故地에 아직 殘留民이 남아서 朝鮮城을 形成한채, 6C 以後에 까지 存續했기 때문이다. 「讀史方輿記要」의 直隸省 新昌城條에 보면,

新昌城即今府治 漢置新昌縣 屬遼東郡後漢因之 晉屬遼東國 今遼東海州衛境 後魏僑置於此屬北平郡 後齊爲郡治 隋改曰盧龍縣 又朝鮮城在府北四十里 漢樂浪郡屬縣也 在今朝鮮境內 後魏主燾延和初 徙朝鮮民於肥如 置朝鮮縣 並置北平郡治此高齊移郡新昌 並朝鮮縣入焉

新昌 北方 40리에 朝鮮城이 있었다는 것과 延和初에는 朝鮮民을 肥如로 옮겨서 朝鮮縣이라 하고 이를 北平郡의 行政區域 속에 넣었으며, 高齊때는 郡을 新昌으로 옮겨 朝鮮縣을 新昌의 行政 속에 編入시켰음을 알겠다. 延和는 後魏 太武帝(423—452)의 年號이고, 高齊는 北齊(534—577)의 年號이니 6C 以後에 까지도 古朝鮮의 舊地인 直隸省內에 朝鮮人의 集團인 朝鮮縣이 存續했음을 알겠다. 肥如의 位置를 좀더 正確히 말하면, 熱河省 圍場縣의 七老圖嶺에서 長城의 內外를 蜿蜒해서 東은 山海關의 北쪽 松嶺에 接한 곳이다. 肥如의 歷史的 背景은,

肥如城 應劭曰 春秋晉滅肥 肥子奔燕 燕封之從此 漢爲肥如縣 屬遼西部

春秋때 晉에 쫓겨 온 肥의 子孫을 燕이 封土한 곳임을 알겠는데, 처음부터 燕과 朝鮮은 地理的으로나 政治的으로 錯雜한 關係를 가지고 나타나다. 于先, 地理的 關係를 보면, 戰國策에서도

蘇秦將從 北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云

이라 하여, 朝鮮과 燕은 接境關係에 있음을 말했고, 史記貨殖列傳에서는

夫燕亦勃碣之間 一都會也 南通齊趙 東北邊胡 上谷至遼東 … 北隣烏桓夫餘 東綰穢貊朝鮮眞番之利

라 하여 좀더 具體的인 提示로 나타난다.

朝鮮의 規模에 對해서는 仔細히 알길은 없지만, 魏略에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 燕 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乃止 使禮西說燕 以止之不攻

이라 하여, 燕과 맞서려고 한 것을 보면 어느 程度의 勢는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朝鮮은 워낙 큰 大陸의 勢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勢에 밀려 韓半島로 밀려 올 수밖에 없었다. 一次的으로 打擊을 준 것은 역시 燕이었다. 魏略의 記錄을 또 引用하면,

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 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濁汗爲界 朝鮮遂弱

燕의 子孫들이 점차 驕虐하여 朝鮮을 攻略하여 二千餘里의 땅을 奪取하면서 부터 朝鮮은 弱勢가 된 것이다.

다음은 秦과 漢에 依해서 決定打를 입었다.

自始全燕時 嘗略屬眞蕃朝鮮 爲置吏 築障塞 秦滅燕 屬遼東外徼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涿水爲界 屬燕(史記朝鮮傳)

이렇게 中國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紛亂으로 因해서 朝鮮民은 韓半島로 밀려온 것은 勿論, 漢의 流移民까지 半島 內部로 混入되어 植民地 開拓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거센 바람에도 不拘하고 朝鮮民이 다 밀려난 것은 아니고 어느 程度의 殘留民이 그 자리에 土着化되었을 것이다. 李丙燾博士도 當時의 이 周邊의 狀況을 이렇게 言及하였다.

“燕領內의 住民의 構成要素를 分析해 본다면 거기에는 漢人系統뿐만 아니라 東胡系統 朝鮮人系統의 사람도 많이 包含되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되겠다. 더욱 이 앞서 全燕時代에 侵略 당한 遼東(朝鮮의 舊西部)地方만 하더라도 그곳 住民의 大部分은 그대로 土着하여 燕의 國籍에 屬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衛滿 당시의 遼東地方에는 朝鮮人 系統의 燕人들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였을 것으로 推測한다.”<sup>(3)</sup>

(3) 韓國史 古代篇 p 119

이렇게 殘留民들은 統治者를 상실했으므로, 그들은 漢·魏·晉은 勿論, 南北朝時代 以後까지도 異國의 統治를 받는 歸化民이 된 것은 사실이나, 前記한 讀史方輿記要에서 밝힌 것처럼 6C 以後에 까지도 끈질기게 中國 땅에 朝鮮縣이라는 名稱이 存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筮篲引은 그 小序에서 朝鮮津卒云云 했지만, 여기의 朝鮮은 韓半島를 指稱한 것이 아니라 中國의 地名으로서의 朝鮮을 말한 것이며, 또 그 朝鮮은 이미 晉域化된 땅이요, 또 그러기 때문에 晉土의 民歌로 採錄된 것에 不過한 것이다.

다음은 「霍里子高」라는 姓名이 주는 暗示다.

古代의 姓氏는 地名과 絶對的인 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諸侯일 경우에는 封土의 地名이 곧 姓氏로 固定된 것이다. 「姓氏尋源」이나 「史記」에서 그 例를 몇개만 보겠다.

梁氏……周封其少子康於夏陽梁山爲氏

楊氏……周宣王少子尚父封於楊 號曰楊侯後并於普因爲氏

楚氏……熊繹封楚 其後以國爲氏

徐氏……伯益佐禹有功 封其子若木於徐 後以爲氏

다음에 「霍里子高」의 姓에서 「霍里」란 姓氏는 없고, 霍氏가 있을 뿐인데, 霍氏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霍氏……周武王之弟封於霍 與管叔蔡叔同監紂 子武庚後 以管蔡之亂 降爲庶人

즉, 霍氏는 周武王의 아우가 霍地方에 封侯되면서 생긴 姓氏이며, 아들 武庚이 管·蔡의 亂으로 因해서 庶人으로 格下되었음을 알려 준다.

다음은 霍里子高란 이름을 地名과 關聯하여 생각코자 한다. 즉, 「霍里」는 中國의 地名「霍縣」이나 山名「霍山」에서 緣由한 것이 아닐가 한다. 上述한 것처럼 古代人의 姓名은 地名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霍里子高의 出產地 또는 緣故地가 霍縣이 아니면 霍山아래 어느 마을이 아닐가 한다. 즉, 「霍里子」는 「霍마을에 사는 사

람」 또는 「霍縣에 사는 사람」이란 解釋이 可能할 것이요, 「霍里子高」는 「霍마을의 高氏」라는 解釋이 可能할 것이다. 더 飛躍해서 「高」字와 「蒿」字 또는 「篙」字가 서로 넘나들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或, 「高」는 사공고(篙)와 같은 概念으로 쓰일 수 있다면, 「霍里子高」는 「霍마을에 사는 沙工」 또는 「霍마을에서 온 사공」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例는 現代에 있어서까지도 職業 또는 사람에 따라서 本名을 부르지 않고 緣故地의 이름을 따서 號稱하는 例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極 危險한 試圖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朝鮮과 霍縣, 또는 霍山과는 密接한 地緣을 가지고 있다. 朝鮮이 屬해 있는 直隸省內에 바로 霍縣과 霍山이 있다는 말이다.

霍縣今縣名 周初霍國 後爲彘邑 隋置霍邑縣 金置霍州 淸爲隸直隸州(爾雅釋丘)

다시, 霍山을 보면,

在山西霍縣東南 遶高三十里 主峯高百丈 有奇盤踞二百里……〔讀史方輿記要〕

이렇게 霍山이 또 霍縣의 東南쪽에 있음을 알겠다.

그러므로, 「霍里子高」는 霍縣이나 霍山과의 地緣的 關係가 있을 것으로 보며, 그것도 아니라면, 庶人으로 零落한 霍氏의 後裔가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萬一 이 論理가 可能하다면 笙篴引은 韓半島의 所産이 아니라 中國의 所産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熱河日記의 銅蘭涉隨에서 朴燕岩이 言及한 笙篴引이 주는 位置다. 或, 燕岩이 言及한 것으로 해서 笙篴引이 우리 文學이란 信念을 굳힐 지 모르지만, 事實은 그 反對다. 먼저, 原文을 引用해 보겠다.

太平御覽云 漢時霍里子高朝鮮人也 晨起刺船 見一白首狂夫 被髮携壺亂流而渡 其妻止之不及遂溺死 妻乃携笙篴鼓之歌曰 公無渡河公終渡河 公淹而死當 奈何 音甚淒切 曲終亦投河而死 子高還以其聲 其妻麗玉 麗玉傷之引笙篴寫其聲爲引

余在熱河太學閱樂器無所謂箜篌者 皇城琉璃廠中多使人求之而適未得 果不識其製

위의 例文中에서 傍點을 적은 部分에 注意를 할 必要가 있다. 즉, 燕岩이 熱河에서 太學에 있을 때 樂器를 구경했으나, 소위 「공후」라는 것을 보지 못했고 여러번 사람을 시켜 北平 琉璃廠에 가서 보게 하였으나 이 악기를 얻어 보지 못하여 그 모양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興味를 끈것은 하필이면 燕岩이 中國에 와서 箜篌引에 關心이 갔을까 하는 것이다. 아마도 箜篌說話에 나오는 「朝鮮」을 中國의 地名으로 意識한 탓일 것이다. 中國에서 朝鮮의 位置는 燕岩이 묵고 있는 熱河一帶이며, 前述한 것처럼, 「朝鮮縣」은 北平의 行政區域에 隸屬해 있었으므로 或時 北平에나 가면 箜篌라는 樂器를 얻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여 北平의 琉璃廠으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하면, 箜篌引의 產地인 朝鮮에 온 김에 기왕이면 箜篌라는 樂器를 구경했으면 하는 衝動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필이면 熱河에 와서 箜篌引을 想起할 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燕岩의 言及은 箜篌引을 韓國文學으로 信念을 굳혀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朝鮮」은 中國의 地名이란 暗示를 질게 한다.

## 結 論

筆者는 箜篌引의 背景을 直隸省內에 存續했던 朝鮮縣으로 보았으며, 晉武帝때 整理된 相和歌로 보았다. 따라서 晉人의 손에 依해서 그들의 傳統的인 스타일로 만들어진 노래이니, 韓國文學의 範疇속에 넣을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晉代 相和歌로 돌려주자는 主張이다.

或, 中國의 朝鮮縣은 過去에 우리의 領土 乃至 韓族의 棲息地였으며 箜篌引은 거기서 피어난 것이니 우리 文學으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는

主張이 可能할 지 모르지만, 그 朝鮮은 이미 晋代에는 中國으로 歸化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素材가 우리 것이라 하더라도 笙篴引과 같은 整然한 詩는 中國의 採錄者에 依해서 中國의 民歌스타일로 만들어진 노래이며, 笙篴說話는 根源的인 이야기와는 달리 그들의 情緒에 맞는 畵畵이 作用되었을 것이다.

笙篴說話의 原形은 琴操說話와 같이 素朴한 身邊的인 事件이었을 것이다. 여기 잠간 琴操說話를 引用해 보면,

崔子渡河操 閔子騫所作也 崔子早失母 後母常以其死母名呼之 不應 輒笞之 崔子乃以渡河爲辭 繫石於腰 自沈而死

勿論, 이 說話도 閔子騫를 끌어 온 것은 後人の 依托임은 말할 것도 없겠으나 笙篴說話에 比해서 極 寫實的이다.

琴操說話가 곧 笙篴說話의 原形이라고는 보지 않으나, 笙篴引의 이야기도 처음에는 極 素朴한 것으로 傳해졌을 것이나, 採集者를 만나 個人 創作처럼 變形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文學 以前의 素朴한 事件을 素材로 하여 晋代 採錄者들이 相和歌로 만들고 또 感動要素를 더하기 爲해서 虛構를 動員해서 說話로 만든 것으로 推測한다. 그러므로, 설령 中國의 地名으로 존속했던 朝鮮을 우리의 領域으로 삼는다 해도 거기서 피어난 이야기는 相和歌를 爲한 素材의 提供에 불과한 것뿐이고, 晋人들은 이 素材를 가지고 中國文學으로 固定해버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文學의 國籍은 素材에 左右된 것이 아니고 作者의 國籍과 言語에 달린 것이다. 우리 古代 小說도 中國을 舞臺로 하고 素材를 中國에서 取한 것이 있으나 아무도 그것을 中國文學이라고 主張할 사람은 없다. 韓國人이 韓國言語로 創作했기 때문이다. 笙篴引도 마찬가지로 경우라 할 것이다.